

# 일반주민접촉 사전許可 받아야

평양에 있을 때 나와 친했던 한 외국인인 홍콩여행중 술집에서 미국사람을 만나 한동안 동문서답을 나눈 일이 있다. 그 미국인은 내 친구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내 친구는 「코리아」라고 대답했다.

미국인은 이 대답을 듣자마자 「얼마나 시끄러운 나라인지」라고 말했고 내 친구는 「아주 조용한 나라」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미국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거짓말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같은 혼선은 내 친구가 「아니요, 조용한 북한을 말하는 것이요」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평양의 외국인

북한에 대한 첫 인상은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평양의 깨끗한 거리를 걸어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붐비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습도 볼 수 없다.

평양에 사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동평양의 대동강구 문수동에 위치한 외교단촌에 거주한다. 이 지역에는 여러나라의 대사관이 있고 외국인들이 거주한다. 이 지역에는 여러나라의 대사관이 있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모여있어 편안한 곳이다. 이 지역의 사거리에는 안전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외교단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소련기자들은 외교단 아파트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4층의 5층아파트는 잘 건축된 것으로 3~4개의 방이 있다. 타스통신 평양지국은 4호빌딩 3층에 있었으며 기자들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외교단촌의 모든 살림문제는 북한 외교부의 외교단사업총국이 결정했다. 각 집에 있는 전화는 시내의 일반전화와 번호가 달랐다. 시내 전화번호는 5자리 숫자였으나 외국인 아파트나 대사관의 전화번호는 3자리 숫자밖에 없었다.

외국인들이 집에서 시내로 전화를 걸려면 0번을 돌린 뒤 일반 번호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시내전화로 집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호텔에 설치된 전화만 외국인 숙소와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는 북한 주민은 호텔에 들어가지 못한다.

북한사회에서 외국인과 일반 주민간의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국기자들에게 철저히

타스통신 前평양특파원이 본

## 북한의 풍물



< 6 · 끝 >



## 자라르첸코 이완

타스통신 서울지국장

히 적용된다. 지난 78년 제정된 외국기자의 취재활동에 관한 일시적인 법에 따르면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은 3개월마다 외교부 보도국에 취재계획

의 국가 사이의 친선과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자들이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글을 쓰면 취재할

을 제출해야 한다. 취재활동은 기자를 담당하는 외교부대변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 90년부터는 타스통신 신화통신에 한해 외교부외에 조선중앙통신사 외사처를 통해 취재활동을 하게 했다. 신문기자는 협조계약을 맺고 있는 북한의 신문사 외사처로 취재계획서를 보내야 한다.

이 법은 기자들의 활동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자신

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의 기자담당 일꾼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글을 쓰려면 좋은 글만 써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평양에 사는 외국인들은 외교단구역내에 있는 평양상점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산다. 지난 87년 이 상점은 외교단내의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4층건물에 있었다. 그러나 2년 후 대성백화점이라는 외화상점이 이 건물에

자리를 잡아 평양상점은 외교단촌의 1층건물로 이사했다.

그때부터 이 상점은 외교단 사람들만 상품을 사는 가게가 되었다. 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평양의 호텔매점이나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은 평양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음을 물론이다. 이 외교단상점의 지난해 식료

보통강호텔 식당, 맥주집을 이용한다.

외교단촌에는 평양 외국인학교가 있고 舊소련대사관안에 러시아중학교가 있어 러시아 동유럽 공물의 외교관 자녀들이 교육을 받았다. 평양 외국인학교는 러시아학교와 달리 영어와 조선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 어떤 러시아 학생들은 외국인 학

## 외교단村 격리거주... 밖에선 通話안돼

「안전兵」항상경비 식료품은 전용상점서 구입  
지방여행때 人的사항적은 각서 반드시 제출

교를 다니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겨울에 레스토랑이나 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름에는 산과 바다를 찾아간다. 남포는 평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어 자주 가는 곳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방에 갈때 이틀전에 외교부로 출발일시와 방문장소 동행인 차량등을 기재한 각서를 보내야 한다.

품을 많이 산다. 대신 일본

품가격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돼지고기 1kg 2천~3천원, 쇠고기 1kg 3천원, 계란 10개 5백원, 오징어 1kg 1천원, 감자 2kg 1천 5백원, 두부 한모 1백50원, 포도 주(독일 프랑스제) 7천~1만원, 쌀 1kg 7백원등이다. 서울에 비해서는 값이 싼 편이다.

평양상점에서는 식료품외에 전자제품 공업제품 옷등을 팔고 있는데 외화상점보다는 상품이 많이 없다. 대신 일본

품을 많이 산다. 대신 일본

품을 많이 산다. 대신 일본

품을 많이 산다. 대신 일본